광주비엔날레재단 새내기 5명 당찬 포부

삼성전자·유엔 인턴·伊 유명잡지 기자…

“잘나가던 직장 버렸어요 광주비엔날레 올인할 것”

광주비엔날레 재단 신입 직원들이 7일 재단 사무실 앞에서 희망을 다지며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보현·유세영·박선양·장상수·최리지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끼와 열정을 다해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에 ‘새싹’이 돋았다. 3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근 재단 신입직원(재단 5급) 공채에 합격한 새내기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직 스위스 제네바 유엔 협력기구 인턴, 구직자의 선망의 대상 중 하나인 삼성전자 직원, 이탈리아의 유명 미술 잡지 ‘디자인붐’의 기자 등 합격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특히 어려서 광주비엔날레를 보고 자란 ‘광주비엔날레 키즈’들인 이들이 광주비엔날레 창설 16주년 만에 재단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절 연휴를 마친 7일 오전 10시, 재단 사무실은 앳된 얼굴의 신입사원들로 활기 찼다.

“선배, ‘어번폴리’ 시민 공모작품이 왔는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해외 유명 잡지에 제8회광주비엔날레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번역을 할까요?”

아직 업무가 낯설어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이들 ‘젊은 피’의 의욕만큼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비엔날레를 보며 자란 세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1회광주비엔날레를 처음으로 경험한 이보현(여·28·홍보사업부)씨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매회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다 보니 예술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직업도 생겼다”고 웃었다.

서울이 고향인 최리지(여·28·홍보사업부)·장상수(27·디자인팀)씨도 광주비엔날레를 보며 미래의 꿈을 키웠다.

이들은 재단의 배려로 자신의 전공과 과거 이력에 맞는 업무를 배정받았다. 3년간 ‘디자인붐’ 기자로 활약하며, 지난해 열린 제8회광주비엔날레를 직접 취재했던 최리지씨는 전공을 살려 국내 홍보 업무를 맡았다.

최씨는 “유럽에서는 이미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 행사로 자리 잡았고, 지난해 직접 취재해보니 실감할 수도 있었다”면서 “광주비엔날레를 홍보하면서 한국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유엔 협력기구에서 사회단체와 유엔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했던 유세영(여·27)씨는 정책기획팀에서 비엔날레의 역사인 자료를 발굴·정리하고,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나온 장상수씨도 전공에 맞게 도심 공공건축 디자인인 ‘어번폴리’를 맡는다.

유씨는 “문화도시 광주의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G20 차관회의를 준비했던 국제회의기획사에서 근무한 삼성전자 출신 박선양(여·24)씨는 시민참여축제팀에 배치돼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게 됐다. 박씨는 “역동적인 광주비엔날레에서 일하기 위해 이직을 했고, 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홍콩 등지에서 3~6년 이상 공부를 해 2~3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재단의 해외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 시절을 홍콩에서 보낸 장씨는 “더욱 많은 외국인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학신입생 위한 추천도서 간행물윤리위, 2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대학 신입생을 위한 추천도서 20종을 선정, 발표했다. 추천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빌 브라이슨·까치) ▲과학혁명의 구조(토머스 새뮤얼 쿤·까치) ▲광장(최인훈·문학과지성사) ▲끝나지 않은 추락(조지프 E· 21세기북스) ▲당신들의 천국(이청준·열림원) ▲로마인 이야기(시오노 나나미·한길사) ▲백년의 고독(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민음사) ▲부분과 전체(베르너 하이젠베르크·지식산업사) ▲부유한 노예(로버트 라이시·김영사) ▲삐딱하게 보기(슬라보예 지젝·시각과 언어)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문예출판사) ▲소크라테스의 변명(플라톤·육문사) ▲왜 도덕인가(마이클 샌델·한국경제신문사) ▲위험사회(울리히 벡·새물결) ▲이중나선(제임스 왓슨·궁리) ▲자본주의와 자유(밀턴 프리드먼·청어람미디어)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책세상) ▲책만 보는 바보(안소영·보림출판사) ▲토지(박경리·나남)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가곡 부르기 2월 행사는 김규환 작곡가 추모음악회로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2월 행사가 1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타계한 김규환 작곡가 추모 음악회로 준비했다. 김씨는 ‘님이 오시는지’ 등 친숙한 가곡을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 작곡가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성윤 시 ‘물새’, 김인곤 시 ‘간다 간다 하더니’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님이 오시는지’ 등을 함께 부른다. 또 초청 성악가 메조 소프라노 이경미씨가 김동환 시와 박원자 시에 곡을 부친 ‘남촌’과 ‘하얀 겨울로 간다’를 선사한다.

그밖에 윤경선(광주예고 1년), 박형래(정광고 교사), 박현, 김우진씨 등 회원들도 무대에 선다. 올해부터는 바리톤 김제선씨가 지도를 맡는다.

한편 우리가곡 부르기회는 3월 21일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고향의 노래’, ‘별’ 등 주옥같은 가곡과 ‘둥글게 둥글게’, ‘아빠의 얼굴’ 등 아름다운 동요를 만든 작곡가 이수인씨 초청 행사다.

기존의 작은 공간을 벗어나 KBS 연주홀에서 진행되며 ‘KBS 개국 71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가곡부르기’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회비 1만원(차·먹을거리 제공)cafe.daum.net/gjkrsong.문의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취색 청자의 향연이 펼쳐진다

10~16일 김순희 초대전

‘연못에 봄물 들다’

청자는 물과 하늘 빛을 닮아 투명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고려청자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도예가 김순희씨가 오는 10~16일 롯데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김씨는 청자에 옻칠 기법을 가미한 독특한 도자 예술을 선보여왔고, 청자 도판에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미감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못에 봄물 들다’를 주제로 비취색 청자의 향연을 펼쳐 놓는다. 버드나무, 물오리 등이 어우러진 봄날의 연못가 풍경을 재현한 작품이다.

또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구성, 청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설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김씨는 “공예라는 경계, 쓰임이라는 경계, 전통과 현재를 넘나드는 경계, 그리고 먹과 붓으로 그리듯, 이를 화면 가득 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단국대 대학원을 나온 뒤 7차례 개인전을 열고, 한·중국도예가회 교류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름빵 먹고 같이 날아요

12~13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19~20일 ‘미녀와 야수’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이 광주를 찾는다.

동화책으로, TV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구름빵’이 오는 12~13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구름빵’은 40만권 이상 팔린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09년 여름 초연 후 2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했으며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요가 삽입된 ‘쥬크박스 뮤지컬’이다.

‘구름빵’은 주인공 홍비와 홍시가 나누는 즐거운 대화와 아기자기한 놀이, 아빠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애틋한 마음 등 훈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동요와 하늘을 나는 플라잉 액션이 결합돼 푸짐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재잘거리는 동물, 채소, 곤충 등의 캐릭터들이 객석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티켓가격 4만원~2만원. 문의 062-374-3304.

19~2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뮤지컬 ‘미녀와 야수’도 공연된다.

극단 코스모스 초청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마법에 걸려 야수로 변해 성에 숨어 살고 있는 왕자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성에 갇힌 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티켓 가격 2만5000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